

정법·복발 얼마나 가꾸었나



◇ '팔만대장경에 새생명' 캠페인이 고계 안팎에서 전개됐다. 사진은 한마음선원이 9월 28일 부산에서 연 모금법회 장면.

법주사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 법회
문의처: 법주사 (0433) 43-4755, 43-8615, 43-3617

**정부는 종교재산 사유권을 보장하고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라**

謹 崙島 KAL 檀越 事 犧牲者의 極樂往生을 祈願합니다
주요계단: 8.6-9.23(49세) 10월 22일 제 5 교구에서 열림

◇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입장료 분리지수를 규탄하는 법주사 입구에 걸린 현수막.



◇ 복녘동포 동거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각계가 동참했다. 사진은 동국대학의 교직원과 학생들이 모은 쌀을 부대에 넣는 장면.



◇ 해인사에서 발견된 11점의 고려의복중 '요선철릭'은 학계에 이르면 전해 지던 의류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 육군특수전학교가 입당 주변에 인분을 뿌리는 등 훼손 행위를 해 불자들의 분노를 샀다.

본지선정 '97 사건과 인물

팔만대장경을 등에 지고 성큼성큼 걸어 오는 소를 상상하며 맞이했던 정축년이 저물고 있다. 올 한해도 불교계는 다시디난했다. 고리에 고리를 꿰고 터져나온 사찰 방화사건과 성보도난 사고에 속수무책이었던 한해였고, 잇따른 종교편향 사건에 아연해했던 한해였다. 그렇지만 각 종단은 전법도생과 종단위상 강화의 의지로 진일보였던 한해로 97년을 기억하고 있다. 불교계 안팎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대처했는가, 누가 어떤 일을 주목을 받았는가, 정축년 한해를 되돌아 보며 올해 보디는 더 알찬 새해를 기대해 본다. <편집자 주>

불교방송 공공화령 사건

1월 21일부터 불거져 나온 불교방송 공공화령 사건은 12월 15일 재단사무국 상무와 경리부 직원에 대한 사법처리와 신임 이사장의 선출이 확정됨으로써 일단락됐다. 총 손실금은 23억5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사건과 관련 4월부터 이사장 직무대행체제가 되면서 방송국 운영과 불자들의 후원에 상당히 타격을 받았다.

잇따른 훼손과 사찰방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육군특수전 학교가 법회에 참가하는 사병들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고 법당 주변에 인분을 뿌리는 등 상상도 못할 훼손사건을 일으켜 불자들을 분노케 했고 국방부장관이 사과했다. 또 북한산 일대의 사찰들이 연쇄적인 방화공포에 휩쓸렸다. 방화 및 미수 사례는 8건으로 집계됐고 서울경찰청에 사찰화재 전담반이 구성됐다.

국립공원 입장료 분리지수

국립공원에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인상을 막기위

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7월부터 입장료를 분리지수 하면서 반년이 된 이 사건은 속리산 법주사가 산문 폐쇄를 강경대응하는 사태까지 악화됐다. 조계종 각 기관의 강경대응 방침 속에 3개월여간 갈등을 빚었으며 10월 14일 전국적인 산문폐쇄를 하루 앞두고 정부와 조계종이 합의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됐다.

성보도난 총 11건

문화유산의 해였던 올 한해동안 도난당한 성보는 모두 11건. 평균 매일 한건씩의 성보가 도난당한 셈이나 회수된 도난성보는 단 2점. 3월 도난당한 기림사 소조비로자나삼존불은 보물 제858호였으며 10월 보경사에서 도난당한 탱화2점과 육전사 탱화는 지방유형문화재였다. 조계종은 '사후이방문' 격으로 성보도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복녘동포동거운동 활발

연초부터 시작된 복녘동포동거 운동은 한해동안 활기를 띠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와 복녘동포동거 불교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벌인 복녘동거 운동에는 3백여 사람과 150여 단체, 각종단이 참여했다. 복녘동거 성금은 총 17억원 가량이 모금됐고 10회에 걸쳐 식량을 지원하는 성과를 올렸다.

불교관계법 개정

전통사찰 보존법 개정안이 3월 국회에서 통과돼 10월에 시행령이 공포됐다. 전통사찰내 경내구역의 범위 확대와 목적사업관련 건물신축등이 주요 골자. 공원입장료중 일부는 문화재 수리보존비로 지급할 것을 규정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11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전통사찰의 농지소유를 가능케 하는 농지법 개정안은 농림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수용키로 약속했다.

남북불교도 공동발원문 발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불교도의 염원을 담은 발원문이 발표된 것은 5월 14일 부처님 오신날 기념 법요식에서였다. 조국의 통일을 염원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발원문은 4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남북불교교실무자협에서 우리측 제안으로 발의되어 5월 1일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호위원장이 최종안을 보냄으로써 발표됐다.

해인사에서 고려시대 의복 발견

고려시대의 광상복 11점이 완전한 형태로 해인사에서 발견됐다. 성보문화재 연구원이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상 복장에서 발견한 고려시대 의류는 포유 5점과 직삼류 3점 삼베로 만든 소매 2점 남쪽 명주천 1장 등, 이중 15세 가량의 남자 광상복인 요선철릭은 그동안 학계에 이르면 전해 오던 의류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팔만대장경에 새생명' 운동 확산

고려대장경 연구소와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추진한 '팔만대장경에 새생명' 운동은 불교계 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동참속에 활발히 전개됐다. 12월 초까지 전국에서 30만8천여명이 동참했으며 19억7천여만원 가량의 모금 실적을 보였다. 불교계에서는 4월 불교방송이 서울시대 대형 사찰을 중심으로 생방송 현장 캠페인을 벌였으며 한마음선원은 9월 부산에서 모금법회를 통해 3억5천만원을 모금하기도 했다.

인각사 수물위기 벗어나

<삼국유사>의 사실인 군위 인각사가 담건설계회 취소로 수물위기에 벗어나고 있다. 교계와 문과 학계의 반대여론에 힘입은 인각사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쉼터대회를 개최했으며 하이텔 나무누리등 PC통신을 통한 반대여론 형성, 서명운동 등을 거세게 전개했다. 결국 군위군은 담 건설계획을 변경했으며 인각사는 8월 10일 일연스님 추모제를 성대히 봉행 인각사의 위상을 재확인 했다.



◇설조스님 ◇성문스님 ◇법륜스님 ◇원명스님 ◇김영한보살 ◇전재국씨

올해도 고계 안팎에서는 많은 인물들이 화제를 일으키며 주목 받았다.

△설조스님은 2월 유상에서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교구본사 주지모임의 회장을 맡은 이후 매일 한차례 이상의 모임을 통해 고계와 종단 문제에 기민한 대응을 했다. 또 스님은 관람료위원회 의장으로서 공원입장료 분리지수문제에도 강경대응하며 공원입장료 폐지운동을 전개했으며 경제정의실천 불교시민연합 회장으로서도 활동하며 불교시민대학을 개설했다.

△성문스님은 민간법인으로 고계 최초의 전용 복지관인 '인연노인복지관'을 개원해 노인복지에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법륜스님은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를 발족 복돋음 돕기에 바쁜 한해를 보냈다. 스님

은 대북 곡물전달등을 위해 9번이나 중국 연변지역을 방문했으며 국내에서도 기금마련운동에 앞장서 민족통일성 화해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원명스님은 외국인 선수행 공간을 강화도에서 건립했다. 10월 28일 개원한 연동국제선원은 외국인 전용 선원으로서 선수행과 더불어 불교정보센터의 기능도 하게 된다.

△대원각의 주인인 김영한보살은 아무런 조건 없이 법장스님에게 대원각을 회사하여 주목 받았다. 대원각은 12월 14일 김장사로 새단장 개원했으며 도심 문화교포의 새로운 장을 열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서출판 시공사 대표인 전재국씨는 <고려불화> <한국불교 현대사> 등 비중있는 불교 서적을 출간해 주목 받았다.

조계종 종정스님 사의표명

○... 3월 10일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이 시의를 표명 고계내외의 관심을 모았다. 3월 26일과 4월 29일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들이 풍도사를 찾아가 사의철회를 간청했으나 월하스님은 사의를 사를 굽히지 않아 사의표명 상태에서 해를 넘기게 됐다.

○... 조계종 교육원이 5월 강연회를 확정 강연교육의 효율화 기틀을 다졌으며 기초교육개혁 추진위는 사(사)에 대한 의복과 명칭을 새로 구분해 승단의 위계를 바로잡는 노력을 보였다.

○... 중앙승가대학의 김포 이전 불사가 8월 음양 건설의 부도로 난관에 봉착했으나 풍림산업이 공사를 계약하다 공사가 재개됐다.

○... 조계종 전국신도회가 신임 회장에 송재전씨를 선출하고 활동에 들어갔으나 이렇다할 성과는 거두지 못했으며 사실사안연합회, 전국신약인연합회, 전국교사불자자연합회등 전국법위의 연합회가 잇따라 창립했다.

○... 외국인을 위한 연수회가 처음으로 송광사에

'97 고계 이모저모

서 열렸다. 10월 5일부터 이틀간 조계종이 마련한 연수회에는 외국인 스님 35명이 참석해 한국불교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 문화계는 전반적으로 미약한 활동을 보였다. 음악공연과 전시회가 예년에 비해 줄어들었으며 찬불가의 창작의욕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조계종이 개최한 제16회 불교미술대전은 출품분야를 예비용과 감상용으로 분리해 긍정적인 광을 받았다. 9월에 열린 종교예술제도 영역을 영화 학술세미나로 확대 호평을 받았다. 해인사 백양사 등이 사찰내에 미술관을 개관하고 백담사에 만해기념관과 교육관이 개관된 것도 중요한 수확으로 꼽혔다.

괘불탱화 7점 국보 지정

○... 칠장사 오불회 괘불탱화등 괘불7점이 9월 처음으로 국보지정을 받았으며 8월에는 은혜사 이미

타 괘불도등 16점이 보물로 지정됐다. 또 북한의 성보문화재가 잇따라 공개돼 눈길을 모으기도 했다.

○... 안동 봉정사에서 현존 최고(最古)로 추정되는 영산회상도가 1월에 발견돼 문화유산의 해가 화망하게 출발했다.

불교 왜곡방송 여전

○... KBS와 MBC등 공중과 방송의 불교왜곡 비하사태가 올해도 발생 불자들의 분노를 샀다. KBS는 '특종 비디오 저널'을 통해 서울대 출신 9명의 출가를 암시적 행위로 규정해 물의를 빚었으며 MBC는 PD수첩 3백회 특집에서 석홍산스님의 송사문제를 여과없이 방영 불교의 위상을 실추시켰다. 아울러 스님을 소재로 하는 광고가 연이어 방송돼 그에 대한 시비가 엇갈리기도 했다.

○... 연말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마련한 불교 지도자 초청 간담회가 줄을 이었으며 IMF체제를 맞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불자들의 노력을 촉구하는 지침이 각 종단과 단체별로 마련됐으며 성명서도 다수 발표됐다.